

이해조의 친일의혹은 사실 왜곡

문학과지성사 공동대표 홍정선 교수 밝혀

홍정선 교수(이하해 국문과)는 12월15일 오후4시 포천중문과대학 학교 세미나실에서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상임대표 홍을표)가 주최한 동농 이해조 문학 기념 특별강연회에서 이해조의 친일의혹의 부당성을 신소설 작가 이인직과의 차별성을 제기하여 문단과 학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홍정선 교수는 정부의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의 하나로 "일의 진행이 차분히 질서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사전에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사실보다 좋문에 근거하여 먼저 판단하려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전

제하고 유치환, 채만식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반면 미담 서정주의 경우와 같이 명백한 친일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그의 문학적 성과를 기리는 것은, 예술가에게 작품의 뛰어난이 생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홍정선 교수는 이해조의 친일의혹과 관련하여 그 빌미로 추측될 수 있는 것도 대부분 지나친 억측이나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포천의 문인들과 문화계 인사, 인근 동두천 의정부의 문인들까지 참석하여 이해조의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강에 이어 5시부터 진행된 이사회에서 2008년도 사업내용 변경



홍정선 교수는 12월15일 오후4시 포천중문과대학 학교 세미나실에서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 주최한 동농 이해조 문학 기념 특별강연회에서 이해조의 친일의혹의 부당성 및 신소설 작가 이인직과의 차별성을 제기하여 문단과 학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안을 승인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변경된 정관은 총회를 폐지하여 이사회가 최고의결기관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7인 이내의 상임이사회를 신설해 이사 중심의 협의체와 대외적으로는 회장 단일체제로 변경했다.

이날 이사회는 총인 36명중 27

명(5명 유임)이 참석했으며 홍을표 회장은 "이제 동농 이해조 선생님을 모시고자 한 지난 4년의 준비기간을 마무리하고, 사업회가 본격적으로 동농 선생의 문학혼을 오늘 이곳에 되살릴 '동농프로젝트'를 가동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23

고을의 품관들에게 나물죽을 대접했던 이지함



리효종 한국한시학회 포천지회장

이지함(1517~1578)의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자는 형중(馨仲), 호는 토정(土亭)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그의 형 이지번(李之蕃)에게 글을 배웠다.

장성하여 모산수(毛山守) 이성량(李星亮)의 사위가 되었다. 팔문십을 올린 이름날 외출하였다가 날이 저물어 사야 들어왔는데 그가 입고 있던 명주 도포가 없어진 것을 알고 집안사람이 물으니 대답하였다.

"홍재원(弘濟院) 다리를 지나다가 거지가아기 추위에 얼어 신음하는 것을 보고 찢어서 세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날 자기형에게 말하였다.

"제가 저의 처가를 관할하였더니 길(吉)한 하루에 없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장차 재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가 처자(妻子)를 데리고 서쪽으로 갔는데, 이듬해에 정말 재화가 일어나 모든 재물이 되었다.

이지함은 또 배를 부려 넓은 바다를 평지처럼 다녔으며, 국내의 산천은 거리가 멀다고 하여 안 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는 또 관직을 자제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여색을 경계하라. 여색에 대한 경계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이지함은 배고픈 것을 참아보려고 열을 동안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목마른 것을 참아보려고 한터 위에 물을 붓기도 하였다. 고달픈 것을 참아보려고 밥이 부르도록 먹기도 하였다.

그는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에게 글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는 늘 무명옷에다 짚신 차림으로 숨웃을 꿰어 입고 다니며 사대부의 집에 가서 어울려 놀면서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만하는 인연을 하였고 여러 방편의 집술(集術)에 환하게 통달하였다. 큰 박을 네 모서리에 매단 거북배를 타고 노도 사용하지 않은 채 세 번이나 제주(濟州)에 들어갔지만, 풍파의 위험을 겪지 않았다. 그때마다 장사를 하여 맨손으로 경향의 사육사 및 년 사하여 수천 석의 곡식을 축적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주는 소행을 펼치고 떠났다.

토성에 들어가 오이를 길러 그것으로 곡식을 삼으며, 또 여러 척의 배로 경강(京江 : 한강)에 이르러서는 낮고 습기가 있는 곳에 흙으로 축대를 쌓았는데 높이가 수십 자 되었다. 거기에도 흙집을 지어 밤에는 흙집에서 자고 낮에는 흙집 위에 올라가 자는 데, 그 흙집을 토정(土亭)이라 하였다. 그 곳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버렸다.

그는 또 쇠로 갖을 만들어 쓰다가 벗어서는 거기에다 밥을 지어먹기도 하였으며, 끝내면 씻어서 다시 쓰곤 하였다(지극히 병겨지기가 이것이다). 더러는 패랭이를 쓰고 거친 헝겊에다 나막신을 신고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스스로 천한 사람의 일을 하여 밀 바다 생활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는 일생동안 남에게 맞이한 적이 없었다. 그가 하루는 느닷없이 민가에 침입하여 어느 부부(夫婦) 곁에 앉아 있었다. 주인이 그 화를 내어 그를 때리려고 하자 그가 늙은 사람을 인화한 말로 내쫓기만 하였다. 또 불기 맞는 행방을 내보려고 일부러 높은 관원이 지나가는 앞길을 밟아려고 하니 그 관원이 화를 내어 불기를 치려고 하자가 재재히 살펴보고는 그 모반이 이상하므로 불기 치러던 것을 그만 두었다.

그의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장사지낸 묘터를 보니 자손 중에 반드시 두 사람의 정승이 나올 터이니는 하지만 막내아들에게는 불길(不吉)하다는 말을 들었다. 막내아들이 바로 이지함이었다. 그러나 이지함은 스스로 그 불길한 것을 때려잡고 하였는데, 뒤에 그의 조카 이산보(李山浦)는 정승이 되었고, 이산보(李山浦)는 벼슬이 1

품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현달하지 못하였다.

포천현감(圃川縣監)이 되어 다급해 무병명옥에다 짚신을 신고 부임하니 딸만 관속들이 음식을 차려 올렸는데, 이지함이 눈여겨 자세히 보고는 수저를 들어보지도 않고 말하였다.

아전들이 틀어 물어앉아 아뢰었다. "고을에 토산물이 없어 차린 음식에 특별한 것이 없었으니 다시 차려 올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진수성찬을 차렸지만 이지함은 또 앞서와 같이 말할 뿐이었다.

"먹을 것이 없다."

아전들이 겁을 내어 벌벌 떨면서 죄 주기를 바라므로 이지함이 말했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고 고달픈 것은 모두 먹고 마시는데 절제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차릴 때에 소반 사용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오곡(五穀)을 섞어서 지는 밥 한 그릇과 나물을 넣어 끓인 국 한 그릇을 갈포(笠帽)나 갑(匣)에 담아 올리라."

이튿날 포천 고을 안의 품관(品官)이 인사하러 찾아오자 딸린 나물도 죽을 쑤게 하여 그 죽을 들도록 권하였다. 품관들은 죽을 나직이 내려 숟가락을 들고는 조금 먹다가 조금 토하고는 그만 먹었다. 이지함은 한 그릇을 다 먹었다. 그러다 일어 앉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으며 만류하였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경사지전(經史子傳)에 통달하고 또한 수학에도 정통했으며 항상 주경리(主敬理)를 학문의 방법으로 삼았다.

1578년(선조 11) 아산현감(牙山縣監)이 되어 절인정(乞人)을 만들어 관내 절인의 수용과 노약자와 기민(飢民) 구호에 힘쓰다가 재직중에 파로로 풀려났다. 물욕이 없어 평생토록 가난한 생활을 했고 의약(醫藥), 복서(卜筮), 천문, 지리, 음악, 술서(術書)에 관한 일화가 많다. 특히 토정비결(土亭秘訣)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장(文長)이다.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 보령의 화암서원(花岩書院)에 제향되었다.

뮤지컬 이야기 #20

아버지의 마음, 감동의 <지붕위의 바이올린> (Fiddler on the Roof, 1964)>

모성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기 있는 소재의 하나였으며 그동안 많은 명작들이 탄생되었다. 하지만 부성애를 다룬 드라마는 그리 많지 않다.

<챔프(The Champ)>는 1979년에 개봉되어 한 때 전 세계인의 눈길을 끌게 만들었던 아버지를 소재로 한 영화다. 술에 빠져 사는 은퇴한 권투선수 아들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다시 링 위에 오르게 되지만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간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에 만들어진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Kramer vs. Kramer)>도 가정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였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존 큐(John Q, 2002)>가 부성애의 한 단면을 눈물겹게 보여주었다. 종종 정통영국의 소재로도 차용되었는 했지만 뮤지컬의 소재로는 별로 인기가 없었으며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뮤지컬의 특성상, 적어도 1960년대 이전까지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백스테이지(Backstage)를 다룬 뮤지컬들이 대세를 이루었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를 소재로 한 무대 뮤지컬은 제작자들의 흥행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렇지만 1960년대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소재가 요구되어졌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1946년에 명작 뮤지컬 한 편이 만들어졌다.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지붕위의 바이올린(Fiddler on the Roof)>은 아버지를 소재로 한 전무후무한 명작 뮤지컬인데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극장에서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서울시립뮤지컬단의 단골 레퍼토리로 꾸준히 공연되었고 현재도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다시 공연되고 있는데 특히 12월에 어울리는 감동

적이며 인상 깊은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작품의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는 관객들도 많이 있다. 유대인들의 풍습과 기질을 비롯해서 그들의 내면적인 신앙과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유대인들의 삶이 현재 우리의 삶과 별다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과 시련 그리고 가족애는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 특히 이 뮤지컬은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과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작품의 기저에 흐르고 있어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깊이가 있는 뮤지컬이다. 극중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공공의 발달의 가치관도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신앙심을 잃지 않고 낙천적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1960년대는 소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다양한 음악을 차용한 뮤지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950년대 까지 재즈에 기반을 두었던 뮤지컬 음악이 록 음악으로 대체 되었고 <지붕위의 바이올린>도 재즈적인 요소를 버리고 우크라이나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역대 박스 오피스 기록을 갱신하며 3,000회 공연을 넘어서는 상업적으로도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최장기 공연의 대기록은 그 후 10년 동안 깨지지 않았으며 그 해 9개의 토니상을 휩쓸며 전 세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905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의 작은 마을 유대인 부락에서 유유자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테비에는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깊은 남자다. 그는 수다스런 아내와 다섯 명의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중 장녀가 양복점 직공과 사

랑에 빠지게 되면서 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그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전통을 존중하는 테비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 결혼을 승낙하고 만다. 그런데 결혼식이 열리는 식장에 러시아 경찰이 들이닥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러시아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특히 유대인 마을에 혹독한 시련이 닥치게 된 것이다. 장녀의 결혼식이 끝나자 이번에는 둘째 딸이 역시 가난한 청년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설상가상으로 셋째 아이도 러시아 청년과 사랑에 빠져 몰래 아버지로 부터 도망쳐버린다. 러시아 혁명으로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을 때 테비에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날벼락이 떨어진다. 유대인을 그 지역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이주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다. 테비에를 비롯한 그 마을의 유대인들은 정든 땅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 머나먼 미국으로 향한다.

물론 이 뮤지컬의 밑바탕에 흐르는 정서는 슬픔이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역압과 편견 속에서 정착지를 찾아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유대인 유목민들의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슬픔을 끌어안으며 구시대적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적이며 억압과 편견을 이겨내는 유대인 가정을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이 때문에 범세계적인 뮤지컬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극중 가장 유명한 노래 '해가 뜨고, 해가 지고(Sunrise Sunset)'는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을 위한 세레나데라고 할 수 있다. '딸을 시집보내는 날, 유랑생활로 심이진 유대인들이지만 모두가 자신의 일처리를 충실히 모인다. 그러나 생활의 슬픔은 여허할 수가 없다. 우울한 분위기가 일순간 흐르지만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들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Sunrise Sunset)'를 연주한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 이 처녀가 내가 안고 다니던 바로 그 작은 소년이었는가? 이 창문이 놀이에 열중하던 그 장난꾸러기 소년이었는가? 난 나이 먹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언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중략)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가고 있구나. (후략)

단순히 즐겁고 행복한 뮤지컬을 원한다면 <지붕위의 바이올린>을 권하고 싶진 않다. 뮤지컬 코미디를 선호하고 있는 관객이라면 다분히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는 뮤지컬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인공 테비에 역을 어떤 배우가 연기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재미와 완성도가 천차만별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서울에서 공연되고 있는 버전은 주인공을 노수현이라는 탤런트라는 점에서 빛을 잃고 코미디로 전락하고 있다. 좋은 배우이지만 하지만 테비에 역에는 역부족이며 치명적인 미스캐스팅이다. (지붕위의 바이올린)의 가슴 뭉클하고 진지한 감동을 느껴보고 싶다면 전혀 권하고 싶지 않은 공연이며 차라리 현재 시중에 DVD로 발매되고 있는 영화버전을 권하고 싶다. 올 겨울 한 번쯤 부성애와 가족의 의미를 이한 편 뮤지컬을 통해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57)

'대나무(竹)' 이야기

조용헌이 쓴 '한국적 명가(韓國名家)'란 저서가 몇 년 전, 인기가에 판매되었는데 필자도 몇 권 구할 수 있어 고향 본에게도 선사한 일이 있다.

조용헌은 그의 저서에서 보면 명가(名家)의 집터에는 대나무가 심어져 있고 연못이 있고 바위가 있더라는 설을 전하고 있다. (이하 생략) 전통 한의와 고서인 '신봉산략(神農本草經)',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보면 대나무는 고혈압, 뇌졸중 등 혈액순환계 질환에 좋고 청혈, 이뇨, 항균, 항염작용 등 인체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당뇨, 해열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보고된 바에 의하면 고향

암, 죽상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할당과 노화방지에 좋은 작물로 소개되고 있다.

죽력(불에 구워서 얻은 액)은 담, 눈병, 중풍, 갈증해소, 비장치료와 튼튼히 하는데 쓰며 '죽엽'이 다양한 질병과 증상에 가장 많이 쓰이며 '죽여(죽질)', '죽력(구운액)', '죽순' 순으로 쓰인다.

'죽순'은 육회, 나물, '죽순 국'→숙취해소에 쓰이는데 이노자용, 갈증해소, 당뇨치료, 해열에 좋다고 기술되어 있다.

대나무 잎에 진액은 쉬지 않고, 통치미에 있을 때부터 쓴다고 하고, 죽부인을 만들어 여름철 부인 대신 시원하라고 끼고 자고

각종 가구(의자, 탁자, 침대, 필통 등)담뱃대, 베개로도 이용된다.

대나무는 조릿대(키 작은 대나무) 왕대, 솜대 등이 있다. 대나무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따뜻한 곳에서 산다. 수명은 150년이다. 대진 이남이 주산지인데 남해안이 많다. 꽃은 잘 피지 않지만 대나무 숲에서 꽃이 한 번 피면 대나무 전체에 꽃이 피어나고 꽃이 질 무렵이면 대나무 모두가 말라 죽는 신기한 특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9종의 대나무가 자라며 매년 죽순이 나오며 15~20일이면 키와 두께가 다 자라고 하루에 1m 이상 자란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모자를 벗어 죽순에 얹고 불일을 다 보

태이는 모태의 양수 속에서 수 천 시간을 담겨 있다가 나온다. 천부의 방식으로 적당히 절여지고 단련되어 사람으로서의 간이 잘 들었을 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우주의 창과 던져지는 것이다. 오묘한 인간창조의 문이 열려 서서히 세상 속으로 헤엄치며 물들어가기 시작한다. 비로소 세상과의 시·공간적 경계를 그 어거머 구석구석의 접속을 시작하게 된다. 첫 물결은 세상과의 정당한 약속을 건다.

사람은 누구나 오관이 있다. 그 오관(五官)은 반드시 오감(五感) [눈(시각), 귀(청각), 코(후각), 혀(미각), 피부(촉각)]를 낳는다. 그 오감은 제각각 제자리에서 유일한 개성으로 서로서로 얽히고 설킨 연계를 한다. 인간은 그 오감을 통하여 엄청난 에너지와 축적하고 사용하여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물들어 지는 것이다. 이때 사람은 여러 양상으로 물들고 변화하며 진화된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색깔을 띠게 된다.

어느 것으로 어떻게 물드느냐에 따라 그 색깔과 필멸이 되는 것이다. 웃감도 어떤 소재에 어떻게 디자인하여 무슨 물감으로 염색하느냐에 따라 유행이 되고 복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의·식·주와 생활 속

에는 물들어야 할 것과 물들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때때로 인간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는 욕심의 욕구가 작동한다. 그러므로 소리나 맛에도 색깔로 이해시키려는 방법을 창안한 것이다. 눈으로 먹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느낄 때에 인간은 욕망의 만족도에 가깝게 된다.

정치사회도 마찬가지다. 담이 진보나 보수나 아니면 중도나 또는 사람이 좌파나 우파나 따질 때 항상 물들은 색깔들이 대두된다. '이무개는 빨갱이야 할 때에 또한 물들여진 과정의 결과물인 것이다. 소위 '패거리 정치', '패거리 문화' 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든 문화의 징표이다.

신앙도 때로는 물든다.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두고는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정신질환으로 중독되어 가정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물들이 될 때도 있다. 교육도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사람의 정신과 습관을 물들이는 것이다. 예술적 사물과 정신도 절이고 물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산물이 아닌가. 사람은 물든 옷은 입고 싶어 하지만 젖은 옷을 입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또 사람은 젖은 빵을 먹지 않으려 들지만 물든 빵은 먹으려 든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은 쉽게 물들고 더디게 젖는 법이다. '눈물 젖은 빵'과 '까마귀 노는

곳에 백으로 가지 마라'는 바로 그러함을 두고 하는 말일 게다.

그러므로 사람의 향기에 물들 때는 진실성을 유념해야 하며, 사람의 말에 물들 때는 정직성을 살필 일이며, 사람이 물질에 물들 때는 주머니의 크기를 다스려야 씹스미의 깊이를 따져볼 일이다. 정신이 깨끗하면 물감도 선명하고 물감이 선명하면 색깔이 화사하다. 그러면 인간과 자연과 하늘이 따뜻하게 물들게 된다.

그럼에도 인간은 틀에 박힌 관화가 아니라 움직이며 변화하는 '코기토 에르고 숨(cogito ergo sum)'이다. 관념에 쩌들어 남의 밥상에 권위적 심술로 똥물을 튀기거나 머릿수로 작당하여 주먹질이나 할 게 아니라 정당한 물감으로 옷을 물들이고 정신은 세박하여 인간적인 문화를 발전함과 인류의 과제를 풀어야 할 열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에 물들며 하늘의 이치에 물들고 착한 사람과 물들어 행복한 삶의 꿈을 물들이면 좋겠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초대 漢詩

燈火梢可親(등화초가친)



香隱 柳鳳鉉 포천한시사 강사

尋章摘句到宵深(심장적구도소심) 文拙焉能發善心(문졸능능발선심) 심장적구 허다가 밤이 깊어졌다. 글이 옳으니 어찌 능히 선심을 다하리오.

※詩는 感發人之善心이라함(詩傳)

卽見房中書字硯(즉견방중서자현) 又聞洞洞搗衣砧(우문근동도의짐) 눈에는 방안에 글자 쓰는 베투를 보았고, 또 근동에서는 옷 디듬는 디듬 소리 들리오네.

少年會友同看冊(소년회우동간책) 耆老邀賓共鼓琴(거로요빈공고금) 젊은 벗을 모아서 같이 책을 보고, 늙은이는 손님을 맞이하여 같이 거문고를 치고네.

勤遊體宜適切(근면유휴의적절) 言忠行篤賑賑欵(언충행篤賑賑欵) 근면과 쉬는 것은 마땅히 적절하게 하고, 인충하고 행덕하면 많은 사람이 흠모하네.